

일제강점기 부산 교파신도(敎派神道)의 현황과 활동양상

문혜진*

| 목 차 |

- I. 서론
- II. 한일병합 이전 부산의 교파신도
- III. 1910년대 부산의 교파신도
- IV. 1920년대 부산의 교파신도
- V. 1930년부터 해방 전까지 부산의 교파신도
- VI. 결론

| 국문초록 |

교파신도는 일제의 종사(宗祀)인 국가신도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신도의 포교의 임무를 부여받고 대만을 비롯하여 일제의 제식민지에 진출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한일병합 이전 부산에 천리교, 그리고 금광교가 진출하였다. 한일병합 이후로는 부산에 1911년 신리교, 1913년 대사교, 1929년 신도본국, 1930년 부상교, 1941년 흑주교가 진출하였다. 일제강점기 전후로 부산에는 7개 종파의 교파신도가 진출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교파신도 중 부산의 교파신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있어 교두보의 역할을 한 점에서 교파신도의 지역사를 연구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연구원 / shlove0315@hanmail.net

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산의 교파신도를 연구대상으로 그 진출양상 및 포교활동을 고찰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조선총독부관보』를 주요자료로 하여,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근대 신문 등을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해방 후에도 이들 교파신도 중 천리교는 서울에 남아, 금광교는 다시 들어와 포교활동을 지속하였으며, 대한천리교는 서울, 경기지부를 중심으로, 한국천리교연합회는 부산, 김해지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파신도의 한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사적(史的)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고 일제강점기 종교문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향후 교파신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부산에서의 교파신도의 진출 및 활동양상을 사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교파신도, 신리교, 천리교, 금광교, 포교

I. 서론

1876년 조일수호조약(강화도조약)에 따라 부산항의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상품의 무관세·일본 화폐의 유통권·일본거류민의 치외법권 등 불평등조약에 의해 일본인이 개항지에서 특권적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상업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많은 일본상인이 개항지 부산으로 몰려오게 되었다. 또한 부산포(釜山浦)는 부산항으로 불려지면서 종전의 부산 왜관의 수문(守門)과 설문(設門)이 철폐되고 왜관을 둘러싼 담장도 헐리게 되었다. 개항 당시 부산거주 일본인의 수는 90명에 불과하였고 그 대부분이 대마도 출신의 상인들이었던 것이, 개항 일 년 후인 1877년에는 500여명, 1881년에는 2000여 명으로 급증하였다.¹⁾ 이와 같은 일본거류민의 증가에 따라 부산에서의 교파신도²⁾의 최초의 포

1) 孫禎睦, 『한국 개항기 도시 변화과정의 연구』, 일지사, 1982, 91~99쪽.

2) 에도(江戸) 막부말기부터 농상공인들 사이에서 강신 체험을 토대로 현세구복적인 경

교는 1893년 고치현(高知縣)의 천리교(天理敎) 신자가 건너와서 포교한 것이 최초라고 전해진다.³⁾ 1945년까지 부산에는 천리교, 금광교, 신리교, 대사교, 신도본국, 부상교, 흑주교가 진출하였다.

교파신도는 국가신도 체제 속에 편입되어 포교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아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틀 속에서 총독부의 종교를 통한 지배전략에 이용되었지만, 치병활동을 중심으로 한 주술적 성격으로 인해 미신으로 간주되어 1920년까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930년대에는 전시체제에 종교보국으로 적극 협력했으며, 이들 교파신도 중 천리교는 해방 후에도 한국에 남아 포교활동을 지속했다.⁴⁾ 2011년 남한의 일본계 신종교를 조사할 당시, 천리교는 12교구 388개소의 교회와 897개소의 포교소가 있었으며 신자는 276,516명이었던 반면, 금광교는 서울에 1개소의 지부에 80명의 신자가 있었다.⁵⁾ 현재 한국 내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천리교를 비롯한 근현대 교파신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이들 종파의 진출경위와 활동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교파신도의 식민지 조선으로의 진출양상을 고찰한 연구로는 권동우의 『일제강점기 敎派神道 한국 유입과 분포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그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교

향을 가진 민간신앙들이 나타났다. 이들 중 13교파가 메이지 정부가 신도국교화(神道國敎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교의(敎義)를 황조 아마테라스를 섬기는 조상숭배적 국가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담긴 교의로 바꾸어 교파신도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 교파신도는 국가신도의 체제 속에 편입되어 ‘신사비종교론’에 의해 그 종교성이 거세된 국가신도(國家神道)를 대신하여 ‘신도’를 조선 등 해외에서 포교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최석영,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권력』, 서경문화사, 1997, 86~90쪽; 村上重良, 『國家神道と民衆宗教』, 吉川弘文館, 2006, 84쪽).

3) 大谷度, 1992, 『敎派神道と近代日本』, 大阪市: 東方出版, 157쪽.

4) 천리교는 1954년 서울 종로 6가에 ‘대한천리교 본원’으로 교단명을 바꾸어 활동하기 시작했다(『세계일보』 2014. 5. 8., ‘천리교, 신은 즐겁고 행복한 세상에서의 삶 원해’).

5) 이원범·사쿠라이 요시히데 편저, 『한일 종교문화 교류의 최전선』, 인문사, 2011, 90쪽.

교파신도의 진출양상을 면밀하게 다루었다. 최석영의 『교파신도의 창출과 식민지 포교』⁶⁾(2012)에서는 교파신도의 포교양상을 무속과의 관련성에서 간략하게 다루었으며, 이원범의 『일본계 신종교 운동의 성립과 사상』(1998)⁷⁾에서는 천리교와 금광교를 중심으로 일제 식민지기 포교양상을 다루었다. 즉, 식민지 조선으로의 교파신도의 전반적인 유입 및 포교양상은 이미 다루어졌지만, 일제강점기 교파신도의 지역사를 다룬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교파신도의 활동이 치열했던 지역은 일본인 거류지가 가장 일찍 형성되었던 부산과 식민지 조선의 중심지로서 인천을 통해 들어온 경성이었다. 그 중에서도 부산의 교파신도의 교회들이 가장 먼저 들어와 타 지역으로의 전파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한 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부산의 교파신도를 연구대상으로 그 진출양상 및 천리교를 중심으로 한 포교활동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부산의 교파신도의 포교자 및 포교소의 창립 인·허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조선총독부관보』(이하 ‘관보’로 표기)를 주요 자료로 하여, 천리교 교단의 잡지 『미찌노도모(道乃友)』,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로 표기) 및 신문 등을 보충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Ⅱ. 한일병합 이전 부산의 교파신도

조선에 침투한 일본의 신도는 메이지유신 이래 국가의 종사(宗祀)가 된 국가신도와 국가의 제사로서 그 종교성을 배제당한 국가신도를 대신

6) 최석영, 『일제의 조선연구와 식민지적 지식 생산』, 민속원, 2012.

7) 이원범, 『일본계 신종교 운동의 성립과 사상』, 『한국종교』 23, 1998.

하여 해외포교 등 종교적 임무를 부여받은 교파신도가 있다. 교파신도는 신도적 요소를 가진 잡다한 교회(敎會) 및 강사(講士)들이 일정 부분 조직화된 것을 하나의 교파로 인정한다는 메이지 정부의 방침 하에 1873년 8월 교부성에 의해 후주교가 공인된 이후 신도수성파(神道修成派), 출운대사교(出雲大社敎), 부상교(扶桑敎), 실행교(實行敎), 신습교(神習敎), 신도대성교(神道大成敎), 어악교(御嶽敎), 신도대교(神道大敎),⁸⁾ 계교(禊敎), 신리교(神理敎), 금광교(金光敎), 천리교(天理敎) 순으로 공인을 받은 신도계 신종교 13교파이다.⁹⁾ 이들 교파신도들은 황조신 아마테라스를 섬기는 국가신도적인 교의로 바꿈으로서 합법적인 포교활동을 인정받아 조선에서의 신도의 포교활동을 전개하였지만, 무단통치기인 1920년까지 치병을 중심으로 한 주술적 종교로 문명국가의 치부로서 일본관헌의 탄압과 감시를 받았다.¹⁰⁾ 다시 말해서, 1914년까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국가신도와 교파신도의 구분이 없이 통계가 집계되어 있듯이 1905년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에서 교파신도는 ‘신도’로 분류되며 통감부, 이후 총독부의 통제 하에서 합법적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1915년 「포교규칙」에서 공인종교는 국가신도·일본 불교·일본 기독교로 한정됨으로서 교파신도는 유사종교(類似宗教)로서 포교활동에 있어 총독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오

8) 신도대교는 교파신도로 허가를 받을 당시의 명칭으로 그냥 ‘신도’라고도 부르다가, 일반명사의 신도와 구별이 되지 않아서 신도본국(神道本局)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9) 이노우에 노부타카 외, 박규태 옮김, 『신도, 일본 태생의 종교시스템』, 제이앤씨, 2010, 310~311쪽.

10) 이원범, 앞의 논문, 1998, 270쪽. 이에 대해 천리교부산포교소를 개설한 오오미네는 “경찰이 교회를 없애고 신자모임을 엄금시켰기 때문에 매월 23일 밤 신도식(神道式-국가신도를 지칭함) 의례를 하는 것처럼 해서 신자를 집합시켰다. 평소에는 통소메에 앞치마복장으로 일견 집안사람처럼 보이게 해서 각각의 신자 집을 방문했지만 관헌의 제지를 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회고하였다(『道乃友』, 1930년 12월호, 天理敎機關誌, ‘海外における最初の敎會長大峰仁三郎と語る’).

히려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한일병합 이전 부산에 진출한 교파신도의 진출상황을 통감부에서 발간한 『포교소에 관한 철』(1907~1909)을 참조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한일병합 이전까지 부산에 진출한 교파신도¹¹⁾

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
천리교	천리교부산포교소(天理教釜山布教所)	1904.10.20.	부산부(釜山府)보수정(寶水町) 14번지	山本六三郎	1908년 10월 28일 통감부령 제45호에 의해 다시 天理教釜山宣敎所로 인가됨
	신도천리교부산교회소(神道天理教釜山敎會所)	1908.10.04.	부산부부평정(富平町) 1정목(丁目) 29번지	南浜喜平	1909년 11월 11일 天理教東韓宣敎所로 개칭
	천리교절영도선교소(天理教絶影島宣敎所)	1909	부산부절영도(絶影島) 1661	海部甚太郎	.
금광교	금광교부산교회소(金光教釜山敎會所)	.	부산항 부평정 15-3	前田五助	1909년 8월 15일 부평정 3정목 17번호로 이전

1910년 한일병합 이전 부산에 진출한 교파신도는 천리교¹²⁾와 금광

11) <표 1>은 통감부 지방부에서 공포한 『포교소에 관한 철』(1907~1909년)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 검색일: 2019.04.05.).

12) 천리교는 1838년 나카야마 미키(中山美伎)가 강신의 체험을 통해 개교하였으며, 주술행위로 인해 탄압을 받아오다가 1880년대에 들어서 권력에 대한 비판을 삼가면서 1888년 신도본국의 6등 직할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이 합법화된다(권동우, 『일제강점기 교파신도 한국 유입과 분포에 대한 연구』, 『일본불교문화연구』 11, 2014, 103쪽). 1903년 ‘명치교전(明治敎典)’을 만들어 국가신도에 대한 충성을 표명하고, 1908년 12월 개별교파로 독립한다(최석영, 『敎派神道の 조선포교와 무속의 대응』, 『민속학연구』 6, 1999, 263쪽).

교¹³)로 천리교가 3개소의 포교소를, 금광교가 1개소의 포교소를 개설하였다. 천리교 기관지 『미찌노도모(道乃友)』(1894)¹⁴)에 따르면, “개정조약(改定條約)¹⁵)에 의거하여 보무도 당당하게 진격하여 청국군을 무찌르며 바다와 육지에서 연달아 대첩(大捷)하였다. 현재 일본인이 (조선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계림(鷄林)에서 포교를 마땅히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기술하여, 천리교의 경우 청일전쟁 이후 본격적인 조선 포교를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포교를 시도한 교파신도는 천리교로 1897년 11월 말경 기비(吉備) 출장소의 신자 무카이 가시치(向井嘉七)의 밀항에 의해 시도되었다. 무카이는 오카야마현(岡山縣) 고지마(兒島) 반도에 있는 히비무라(日比村)의 어부였다. 이곳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규슈에서 멀리 부산 연안까지 오가며 부산을 발판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어부들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가 이들에게 신님의 가르침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바다를 건너왔다.¹⁶) 1908년 마쓰무라 기치타로(松村吉太郎)가 천리교 한국포교 관리자가 된 직후 무카이는 위 <표 1>의 천리교부산포교소가 이사청(理事廳)의 인가를 받는 데 공헌하였으며, 무적자(無籍者)로 여러 번 추방을 당하기도 했지만 1916년에 같은 포교소의 담당자로 취임하였다.¹⁷)

13) 금광교는 금광대신(金光大神, 본명 赤澤文治)이 제창한 것으로 1875년 오사카에서 개교, 1885년 신도본국의 소속교회가 되었으며, 1900년에 별파교단으로의 독립을 공인받았다(권동우, 앞의 논문, 2014, 102쪽). 금광교는 교파신도로 공인을 받은 후, 천황제에 어울리게 교의·조직·의식을 변경하며, 1912년부터는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신충효일본(信忠孝一本)’이라는 신앙이해를 전개한다(大林浩治, 「전전기 금광교의 신앙과 실천」, 『한국종교연구회보』 6, 1995, 8쪽).

14) 『미찌노도모(道乃友)』, 1894년 11월 28일자 36호, “神道と海外布教”.

15) 1876년 2월 27일자 병자수호조약.

16) 大谷度, 앞의 책, 1992, 157쪽.

17) 『조선총독부관보』 1916. 02. 12. 1055호 3면, ‘布教擔任者届出’. 『조선총독부관보』 1916. 12. 01. 1298호 5면, ‘布教廢止’.

두 번째로 부산에서 포교를 시도한 이는 나카무라 준페이(中村順平)이다. 그는 무야(撫養) 계통의 가가와(香川) 지교회장의 권고에 따라 1902년 2월 7일 부산으로 밀항하여, 부산부 서정 2정목 11번지에 사는 가즈시마 조사쿠(勝島常作)에게 방 하나를 빌려 3월말부터 부적(辻占買)을 팔면서 포교를 시작하였다. 나카무라는 1899년 가가와 와카미야(若宮) 출장소의 오오미네 진사부로(大峰仁三郎)에게 전도되었다. 이에 와카미야 출장소 출신의 야마모토 로쿠사부로(山本六三郎)와 함께 포교활동을 전개하며, 위 <표 1>의 천리교부산포교소의 창건에 기여하였다.¹⁸⁾ 천리교부산포교소의 담당자로서 야마모토 로쿠사부부가 취임하였으며, 제2대 담당자는 오오미네 진사부부가 취임하였다. 한편 재부산 일본거류민이 병의 치유에 의해 전도되어 포교사가 된 경우도 있었는데, 1890년 부산으로 건너와서 부산의 선정(仙町: 영도 신성동)에서 두 부집을 경영하던 다카다 기쿠마츠(高田菊松)와 가이후 진타로(海部甚太郎)가 그 사례이다. 이들은 치병으로 전도되어 영도에서 포교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1909년에 위 <표 1>의 절영도선교소(絶影島宣敎所)를 창건하였으며, 가이후 진타로가 초대 포교담당자가 되었다.¹⁹⁾

이와 같이 한일병합 이전의 교파신도, 특히 천리교의 포교는 당시 일본 내 교파신도를 포함한 신종교의 박해²⁰⁾를 피해 왔기 때문에 포교사의 자격 같은 것은 거의 갖고 있지 않았고 여권도 없었다. 천리교의 초기 포교자 무카이, 나카무라와 같이 한일병합 이전 교파신도의 포교자들은 학력이나 직업 상 교도직(敎導職) 자격을 얻기가 힘들어 정식 도항수속(渡航手續)을 밟을 수 없어 밀항으로 건너오는 경우가 많았다.

18) 정명수, 『대한천리교사1: 식민지 시대의 신도천리교』, 미래문화사, 54~55쪽.

19) 정명수, 앞의 책, 2000, 56~57쪽.

20) 1896년 4월 6일 내무성 비밀훈령 갑 12호를 발표하여 일본의 각 부현(府縣)과 전국 경찰서, 경찰 분서에 비밀 지령을 하달하여 음사사교집단으로 규정하여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동시에 각종 언론을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반음사사교(反淫邪許敎)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Ⅲ. 1910년대 부산의 교파신도

1910년대 교파신도의 진출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보』의 부산의 포교소 설립신청서(布敎所設置屆)를 정리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1910년대 부산의 교파신도 진출양상²¹⁾

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
천리교	천리교부산 선교소 ²²⁾	1904.10.20.	부산부 대청정(大廳町) 4정목 43번지	山本六三郎	1915년 12월 23일 大峰仁三郎가 교회담당자 신청서 제출
	천리교동한 선교소	1908.10.04.	부산부 부평정 1정목 29번지	南浜喜平	-1915년 12월 23일 向井政市가 포교신청서를 제출 -1916년 8월 12일 南濱喜平가 포교폐지 신청
	천리교절영도 선교소	1909	부산부 절영도 1661	海部甚太郎	1916년 2월 25일 포교담당자가 高田菊松로 변경
	천리교동래선교소(天理敎東萊宣敎所)	1911.09.25.	경상남도 동래군(東萊郡) 동래면	大貫松四郎	.
	천리교신탕선교소(天理敎神湯宣敎所)	1911.09.25.	경상남도 동래군 동래면 온천동 온천리	山下朝治郎	1916년 7월 25일 山下朝治郎가 포교폐지 신청서를 제출

21) <표 2>는 1910년 1월부터 1919년 12월까지의 『관보』에 기록된 부산의 각 교파신도와 관련된 포교소설립허가(布敎所設立許可), 교회소이전허가(敎會所移轉認可), 포교소위치변경(布敎所位置變更), 포교위임자신청(布敎擔任者屆出), 포교위임자변경(布敎擔任者變更), 포교소명칭변경허가(布敎所名稱變更許可)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지면상 각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자료출처는 생략하도록 한다.

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
	천리교초량선교소(天理教草梁宣敎所)	1911.10.25.	부산부 수정동 358-8	高橋武藏	-1911년 10월 25일에 초량 110번호로 이전 -1915년 12월 23일 明山丑之助가 교회담당자 신청 -1919년 5월 11일 明山丑之助가 포교폐지 신청
	천리교절영도선교소(天理教絶影島宣敎所)	1911.12.11.	부산부 영선정(瀛仙町) 변외(番外) 1-2	高田菊松	.
	천리교애조선교소(天理教愛朝宣敎所)	.	대신동(大新洞) 984-6	.	.
	천리교목지도선교소(天理教牧之島宣敎所)	.	남빈정(南濱町) 2정목 3	.	.
	천리교포교소(天理教宣敎所)	1911.12.11.	경상남도 부산부 절영도 주갑(洲岬) 39번호	土井寶市	.
	천리교포교소(天理教布敎所)	1912.05.21.	부산부 부산진(釜山鎭) 95번호	岡崎利助	.
	천리교조남선교소(天理教朝南宣敎所)	1915.12.23.	부산부 범일동(凡一洞) 85-1	原菊太郎	1918년 10월 22일 村上伊勢次가 포교신청 ²³⁾
	천리교부산교회대신동출장포교소(天理教釜山教會大新洞出張布敎所)	1918.11.18.	부산부 대신동 239-1	藤崎虎夫	.
	천리교부남선교소(天理教釜南宣敎所)	1919.04.19.	부산부 남빈정 1-7	多賀谷秀平	.

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
금광교	금광교부산교회소	.	부산부 부평정 3정목 17번호	前田五助	1912년 1월 25일 토성정(土城町) 2정목 27-1로 이전
신리교	신리교부산교회소(神理敎釜山敎會所)	1911.08.25.	부산부 서정(西町) 1정목 35-3	藤崎虎夫	-1914년 12월 18일 녹정(綠町) 2정목 65번지로 이전 -1917년 4월 16일 부평정 2-14-3으로 이전
	신리교부산교회소(神理敎釜山敎會所)	1914.08.20.	부산부 초장정(草場町) 2정목 21 번호	木村メイ	.
	신도신리교부산포교소(神道神理敎釜山布敎所)	1916.08.16.	부산부 나카노정(仲ノ町) 3-4	田中藤太郎	.
	신리교부산교회대신동출장포교소(神理敎釜山敎會大新洞出張布敎所)	1918.11.18.	부산부 대신동 239-1	藤崎虎夫	.
대사교	대사교초량교회소(大社敎草梁敎會所)	1913.07.02.	부산부 본정(本町) 5정목 34-2	大谷豊太郎	1919년 2월 13일 부평정 3정목 45로 이전하고 '大社敎釜山敎會所'로 명칭 변경

위 <표 2>에 따르면, 1910년대 부산에 진출한 교파신도는 천리교, 금광교, 신리교,²⁴⁾ 대사교²⁵⁾로 한일병합 이전에 비해 신리교와 대사교가

22) 『조선총독부관보』 1912. 12. 19. 117호 7면, ‘布敎所移轉認可’에는 1912년 5월 21일 부산부 수정동(寶水町) 1정목 136번호에서 대청정(大廳町) 4정목 43으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3) 『조선총독부관보』 1918. 11. 21. 1887호 5면, ‘布敎届出’.

24) 신리교는 1880년 사노 쓰네히코(佐野経彦)가 신리교회(神理敎會)를 설립하며 시작

새롭게 부산에 진출하였다. 그 중 천리교가 11개소의 포교소를 증설하며 가장 큰 폭으로 확장했으며, 신리교가 4개소의 포교소를 신설하며 천리교의 뒤를 이어 확대되었다. 한일병합 이전부터 1910년대 초까지 부산의 교파신도의 특징으로서 부산의 포교소가 조선 포교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한 점을 들 수 있다. 가령 1909년 4월에 부산부 보수정 1정목 36번지에 천리교 조선포교자관리소가 설치되었지만 1911년 5월 31일 경성부 고시정(古市町) 15번지로 이전하여 포교의 구심점이 경성으로 이동하게 되었다.²⁶⁾ 또한 금광교의 경우 조선의 포교를 총괄하는 한국포교관리소가 1907년 이후 부산 부평정에 소재하였으며,²⁷⁾ 금광교부산교회에서 대구포교소를 확장하기도 하였다.²⁸⁾

한편 교파신도 교회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천리교의 경우 농장을 매입하여 포교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즉, 무야(撫養) 대교회장 도오샤 우노시케(土左卯之助)가 무야 대교회의 주관으로 1907년 1월에 한국에서 농업 개발을 병행하여 해외 포교를 하는 근거를 만들 목적으로 뜻을 같

했으며, 1894년 교규(教規)인가를 얻었다. 독립적인 한 교파로서 인정받기 위해 신리교는 신도(信徒)에게 경신애국(敬神愛國)·천리인도(天理人道)·황상봉대(皇上奉戴) 및 조지순수(朝旨遵守)라는 교부성의 국민교화 3조 규칙을 받도록 하였고, 제례에도 황실제사와 관련된 국가신도 제의를 많은 부분을 포함하게 되었다(이노우에 노부타카 외, 앞의 책, 2010, 317쪽. 小野清秀 著, 『神道教典』, 大聖社, 1915, 199쪽. 최석영, 앞의 논문, 1999, 265쪽).

25) 출운대사교는 대사교라고도 칭하며, 1873년 당시 출운대사(出雲大社) 궁사(宮司)였던 센게 다카토미(千家尊福)가 창설한 교단이다(이노우에 노부타카 외, 앞의 책, 2010, 315쪽). 교의는 국가신도의 영향이 무척 강하고, 오오쿠니누시(大國主神) 신앙과 천황숭배를 일체화하였다(出雲大社教 홈페이지 <http://www.izumooya shiro.or.jp/hitobito/taisyakyo/> 검색일: 2019. 03.21.).

26) 정명수, 앞의 책, 2000, 160쪽.

27) 『포교소에 관한 첩』(1907~1909년) 중 ‘금광교 한국포교관리소 이전의 건’ 참조(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 검색일: 2019.04.05.).

28) 금광교부산교회대구포교소(金光教釜山教會大邱布教所)를 경상북도 대구 행정(幸町) 29번지 4호에 설립의 건을 제출, 동교(同教) 조선포교관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8월 3일부로 허가한다(『조선총독부관보』, 1912. 08. 24. 22호 4면, ‘布教所設立認可’).

이 하는 자를 모와서 흥농회(興農會)를 조직하고 무야농작소(撫養農作所)를 개설하였다. 무야농작소는 부산 북서의 낙동강 연안의 김해에 약 200정보(町步)를 매입하여 개간한 것으로 일본인 농부 20호와 조선인 소작에 의해 경작되었다. 이에 부산의 무야 계통의 교회인 천리교부산 선교소와 천리교동한선교소 등의 포교자들은 이 농장으로부터 매일 한 사람당 한 말의 반미(飯米)를 지급받아 생계의 걱정 없이 포교에 전념할 수 있었다.²⁹⁾ 이러한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1945년 일제가 패망하여 철수할 당시 부산을 중심으로 설립된 무야계 천리교 교회는 10군데나 있었다.³⁰⁾

특히 부산의 천리교 대표 포교소였던 천리교부산선교소에서는 배기련이라는 학식 있는 조선인 신자가 있어, 포교 상의 통역을 담당하였다.³¹⁾ 또한 부산선교소는 일한동심회(日韓同心會)라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친목단체를 결성하여 경조사 등에 공동으로 협동하는 등 친화책을 씀으로써 전도에 효과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찌노도모』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4월 3일에 제4회 춘기운동을 개최한다는 요지를 일한동심회 명의로 신도회원 일동에게 통고하고 있었다. 부산 초량에 모여 사는 신도는 원래부터 경성·인천 방면의 백 리나 되는 먼 곳에서 와서 모여 살고 있는데, 일본인 천여 명에 조선인이 천여 명이나 되었다.(중략)

그리고 그날의 경기의 종류는 깃발 뺏기, 달마(達磨) 떨어뜨리기, 공기 넣기, 머리수건 벗기기, 눈감고 구슬 줍기 등으로 경기를 재미있게 했는데, 10세부터 60세까지 남녀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일한(日韓) 대항전 등을 하면 일본인이나 한국인 모두가 자기업(業)이나 하던 일

29) 『미찌노도모(道乃友)』 1909년 5월호부터 8월호, ‘松村教正の韓國視察談’.

30) 정명수, 앞의 책, 2000, 68쪽.

31) 『미찌노도모(道乃友)』 1909년 5월호부터 8월호, ‘松村教正の韓國視察談’.

을 제쳐놓고 가족을 동반해 와서 남자가 할 때는 부인이, 부인이 할 때는 남편이 응원을 하는 등 실로 재미있는 일이 여러 가지로 벌어졌다. 또 일조(日朝) 부인끼리 경쟁을 하면 한국 부인은 윗저고리를 벗고 폼을 재고 나오고 일본인 부인은 하오리(윗옷)을 벗고 지지 않으려고 힘을 과시하려 하는 모습과 서로가 승산 있다고 자신하며 나올 때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과의 친목과 친선을 도모함은 물론 유대를 깊게 하여 생활 관습까지 서서히 개혁시켜 가고 있었다. 하나의 국민으로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목적을 실현하고 동화하려고 노력하는 데 효과가 컸다고 볼 수 있다.³²⁾

천리교는 조선인을 전도하기 위해 조선인 통역을 활용하고 ‘일한동심회’라는 친목단체를 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표 2>의 천리교동래선교소나 천리교신당선교소, 천리교조남선교소와 같이 조선인 거주 지역인 동래군 혹은 범일동까지 확장하여 조선인 전용 포교에도 힘을 쏟았다. 이는 1910년 10월호 『미찌노도모』 사설에서 “한국병합 직후에는 내부적 동화, 정신적 교화는 천리교포교사의 사명”이라는 문구처럼, ‘내선일체’를 목표로 조선인에게로 포교의 확장을 시도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1910년대에 새롭게 부산에 진출한 출운대사교의 경우 1916년 4월 출운대사교회소의 신축에 들어갔으며,³³⁾ 천리교에 이어 부산에서 교세를 크게 확장했던 신리교의 경우 출정군인의 무운장구를 기념하기 위해 임시제전을 집행하고 포탄(砲彈)제거 부적을 군인에게 배포하는 등³⁴⁾ 주술을 동원하여 일제의 식민지 확장에 협력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32) 『미찌노도모(道乃友)』 1911. 10., ‘日朝運動會’.

33) 『부산일보』 1916. 4. 11., ‘출운대사교회소[出雲大社教會所]의 신축’.

34) 『부산일보』 1918. 9. 19., ‘신리교[神理教] 부산교회소, 총알제거[彈除] 부적[神符]을 배포’.

IV. 1920년대 부산의 교파신도

1920년대 교파신도의 진출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관보의 경성부 포교소 설립 신청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1920년대 부산의 교파신도 진출양상³⁵⁾

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
천리교	천리교부산 선교소	1904.10.20.	부산부 대청정 4정목 43번지	大峰仁 三郎	-1921년 6월 22일 大峯五一郎가 포교신청 -1925년 5월 13일 天理敎釜山支敎會 로 명칭 변경
	천리교동한 선교소	1908.10.04.	부산부 부평정 1정목 29번지	向井政市	.
	천리교절 영도선교소	1909	부산부 절영도 1661	高田菊松	.
	천리교동래 선교소	1911.09.25.	경상남도 동래군 동래면	.	.
	천리교신당 선교소	1911.09.25.	경상남도 동래군 동래면 온천동 온천리	山下朝 治郎	.
	천리교초량 선교소	1911.10.25.	부산부 초량 110번호	高橋武藏	-1921년 4월 20일 花房久吉가 포교 신청 -1922년 9월 13일 古川市造가 포교신청

35) <표 3>은 1920년 1월부터 1929년 12월까지의 『관보』에 기록된 부산의 각 교파신도와 관련된 포교소설립허가(布敎所設立許可), 교회소이전허가(敎會所移轉認可), 포교소위치변경(布敎所位置變更), 포교위임자신청(布敎擔任者屆出), 포교위임자변경(布敎擔任者變更), 포교소명칭변경허가(布敎所名稱變更許可)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지면상 각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자료출처는 생략하도록 한다.

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
	천리교절영도선교소	1911.12.11.	부산부 영선정 번외 1-2	高田菊松	.
	천리교선교소	1911.12.11.	경상남도 부산부 절영도 주갑 39번호	土井寶市	.
	천리교선교소	1912.05.21.	부산부 부산진 95번호	.	.
	천리교조남 선교소	1915.12.23.	부산부 범일동 85-1	原菊太郎	-1927년 6월 27일 原菊太郎가 포교폐지 신청 -1929년 3월 11일 포교소 폐지 신청
	부산교회대신 동출장포교소	1918.11.18.	부산부 대신동 239-1	藤崎虎夫	1925년 5월 12일 近藤松藏가 포교신청
	천리교부남 선교소	1919.04.19.	부산부 남빈정1-7	多賀谷 秀平	1924년 2월 18일 桐山松次郎가 포교신청
	천리교경부선 교소(天理教 京釜宣敎所)	1921.08.12.	부산부 부평정 4정목 19	花田悅 次郎	.
	천리교보수선 교소(天理教 賓水宣敎所)	1926.11.12.	부산부 보수정 2정목 73	綱永イト	.
	천리교궁조선 교소(天理教 宮鮮宣敎所)	1926.11.12.	부산부 중도정(中島町) 2정목 67	川井角次	.
금 광 교	금광교부산 교회소	.	부산부 토성정 2정목 27번호	前田五助	.
	금광교부산교 회초량포교소 (金光教釜山教 會草梁布敎所)	1923.03.27.	부산부 초량동 43	前田マツ	.

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
신리교	신리교부산교회소	1911.08.25.	부산부 부평정 2정목 14-3	藤崎虎夫	-1923년6월18일 藤崎虎夫가 포교폐지 신청 -1924년1월10일 山崎繁次郎가 포교 담당 -1924년12월16일 초장정 2정목 34로 이전 -1926년 3월 22일 대신정 347로 이전 -1929년 8월 26일 초장정 3정목 86으로 이전
	신리교부산교회소	1914.08.20.	부산부 초장정 2정목 21번호	木村メイ	1920년 11월 木村メイ 사망
	신도신리교 부산포교소	1916.08.16.	부산부 나카노정 3-4	田中藤太郎	1920년 8월 30일 대청정 1정목 9-1로 이전
	신리교부산교회대신동출장포교소	1918.11.18.	부산부 대신동 239-1	藤崎虎夫	1920년 9월 30일 神理敎大新洞布敎 所로 개칭
	신리교부산교회소출장포교소(神理敎釜山敎會所出張布敎所)	1921.05.22.	부산부 수정동 318	藤崎虎夫	.
	신리교보수포교소(神理敎寶水布敎所)	1925.05.02.	부산부 보수정 2정목 93	竹枝サク	.
	신리교부산지교회(神理敎釜山支敎會)	1926.03.08.	부산부 서정 4정목 15	岡登里	.
	신리교대신포교소(神理敎大新布敎所)	1928.07.12.	부산부 대신정 (大新町) 471	.	.

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
	신리교부산분교회(神理教釜山分教會)	1928.07.23.	부산부 변천정(辨天町) 3정목 11	.	.
	신리교목도포교소(神理教牧ノ島布教所) 36)	.	釜山府 牧ノ島 瀛仙町 1260-8	.	.
대사교	대사교부산교회소	1913.07.02.	부산부 부평정 3정목 46	大谷豊 太郎	-1925년 9월 9일 포교관리자가 後藤梶之助로 변경 -1928년 11월 12일 포교관리자가 野上雄治로 변경
신도본국	신도환산교회 부산지교회소 (神道丸山教會釜山支教會所) ³⁷⁾	1929. 2. 21.	釜山府 서정4정목 18-1	古市トモ	.

<표 3>에 따르면, 1920년대 부산에 진출한 교파신도는 천리교, 금광교, 신리교, 대사교 및 신도본국에 소속되어 활동한 환산교³⁸⁾로 신도본국³⁹⁾이 새롭게 부산에 진출하였다. 교세에 있어서는 천리교가 15개소

36) 『조선총독부관보』, 1926. 07. 17. 4173호 5면, ‘布教所所在地變更屆’만 있으며, 설립 신청 및 허가, 포교담임자 신청 등은 관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37) 『조선총독부관보』, 1928. 10. 22. 546호 5면, ‘布教擔任者屆’.

38) 이토 로쿠로베(伊藤六郎兵衛, 1829-1894)를 교조로 하는 신종교이다. 로쿠로베는 부사강(富士講)을 신앙하면서 1870년 신의 계시를 받아 수행했다고 한다. 그 후 1875년에 시시노 나카비(宍野半)가 이끄는 부사일산강사(富士一山講社)와 합동으로 환산교회본부(丸山教會本部)를 설립한다. 1885년에 부상교로부터 신도본국에 소속했는데, 메이지 중기에는 간토지방을 중심으로 한 때 1백만 가정을 넘는 신자수를 자랑했다고 한다. 메이지 말부터 교세가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전후 1946년에 환산교로 독립했다(이노우에 노부타카 외, 앞의 책, 2010, 311쪽).

39) 메이지시대에 신도계 신종교가 공공연히 포교활동을 하려면 신도교파로서 일과 독립하든가 아니면 다른 교회의 지부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교파신도는 신

의 포교소로 가장 컸으며, 신리교가 10개소의 포교소, 금광교가 2개소의 포교소, 대사교·신도가 1개소의 포교소 순이었다. 교세 확장에 있어서는 신리교가 6개소의 포교소를 증설하여 가장 교세를 확장하였으며, 천리교 3개소, 금광교·신도가 1개소 순으로 증설하였다.

1920년대의 종교정책은 소위 ‘문화정책기’에 해당되는데,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같은 해 8월에 조선총독부의 관제개혁과 동시에 총독부의 학무국에 종교과가 신설되었다. 1920년 4월에는 1915년 8월 공포된 ‘포교규칙’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 등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허가가 있게 되어있던 것을 총독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⁴⁰⁾ 이에 대해 천리교측은 “포교규칙의 개정은 신교자유의 원칙에 기해서 교회설치의 자유의 권이 주어진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조선민족 동화를 위해 (중략) 구제지도(救濟指導)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⁴¹⁾

1920년대는 1930년~1945년에 비해 교세의 확대 및 새로운 교파신도의 진출이 미약하였는데, 이는 3·1독립운동 이후 교파신도에 대한 조선인의 기피현상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미찌노도모』에서는 “1919년 1월 22일의 전 국왕 고종의 서거 후에 참배를 중지한 조선인 신자가 속출하고, 삼일 독립만세 후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끊게 되었다.”⁴²⁾, 3·1만세운동 이후 “일부 조선인의 심리 어디엔가 내재하고 있는지 몰

도 13파라해도 상당히 성격이 상이한 교파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었다. 이는 환산교가 부상교에서 신도본국으로 소속을 옮겨 활동한 것을 한 사례로 들 수 있다. 신도본국은 메이지 8년 신도의 국교화를 위해 설립된 신도사무국(神道事務局)의 기능을 계승한 것으로, 일파로 독립할 만한 세력이 안 되는 교회들을 슬하에 끌어 모아 교파로서 체제를 유지했다. 따라서 교의 측면에는 신도대교다운 독자적인 특징은 거의 없다 (이노우에 외, 앞의 책, 2010, 317쪽).

40) 文智炫,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신종교에 대한 정책과 신종교단체』, 『한국사연구』 114, 2013, 240~246쪽.

41) 『미찌노도모(道乃友)』 1920. 5., ‘朝鮮布教規則の改正と鮮民敎化の急務’.

42) 『미찌노도모(道乃友)』 1922. 8., ‘鮮在住の布教師の文章’.

라도 실제로 어느 조선인 신도는 천리교는 일본인의 종교이고 일본인 이외의 사람은 이 신앙을 할 것이 못 되니 빨리 그 신앙을 버리라는 말로 유혹을 받았다.”⁴³⁾고 기술하고 있다. 천리교측은 3·1운동을 계기로 “본교가 조선포교에 종사하게 된 지 이미 수십 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략) 진정 조선인 신도수는 실제로 미미한 형편”으로 이는 “언어의 부자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조선의 풍습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⁴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표 3>의 조선인 지구에 창건된 천리교조남선교소의 포교소 폐지신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립운동의 충격에 의해 조선인 포교의 긴급함을 통절하게 느낀 천리교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선인을 일본인과 같은 풍속으로 동화시키기 위해”⁴⁵⁾ 교의강습소를 개설하였다. 강습기간은 6개월로 하고, 조선인에게는 일본어, 일본인에게는 조선어를 가르쳐 ‘교의요령(敎義要領)’ ‘제식(祭式)’ ‘축사(祝詞)’ ‘조선의 제문선교’ 등을 강연하여 포교사를 양성하려고 했다. 1921년에는 공비 약 2만5천엔을 투자한 서양식(洋風) 벽돌로 만든 지하실이 붙은 2층 건물로 교사(校舍)가 완성되었다. 또한 조선거주일본포교사의 조선어학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의강습소에 조선어연수료가 부설되었다.⁴⁶⁾ 하지만 강습소의 비용 문제로 조선인들의 입학이 부진⁴⁷⁾하자 1928년부터 교의강습소

43) 『미찌노도모(道乃友)』 1919. 5., ‘朝鮮暴動と本敎の使命’.

44) “본교의 포교사가 포교하여 질병에 대한 구제를 하여 신기할 정도로 수호를 받게 했으나 그 신자는 오래 신앙을 계속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략) 역시 우리 쪽의 언어의 부자유로 인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어 계속하여 수리 거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포교를 하더라도 우선 조선인과 동화되어 그들을 승복시켜야 되고 교단 내 각 교회는 조선에 들어와서 먼저 풍습과 그 상황을 돌아보고 나서 포교사를 파견해 주기 바란다.”(『미찌노도모(道乃友)』 1919. 5., ‘朝鮮暴動と本敎の使命’).

45) 『미찌노도모(道乃友)』 1916. 12., ‘朝鮮布敎に就て’.

46) 大谷度, 앞의 책, 1992, 165쪽.

47) 『미찌노도모(道乃友)』 1927. 11. 5., ‘朝鮮敎化の實際’.

(敎義講習所)에 입소하는 조선인의 학비나 기숙사에서 식비 등에 대한 보조가 실시되었다. 이에 1928년 9월부터 1930년 9월까지 2년간 졸업자 191명 중 조선인은 64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1930년 10월부터는 조선인만이 입소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1931년 3월부터 1934년 9월까지 174명의 조선인이 졸업⁴⁸⁾하며 큰 효과를 거두었다. 즉, 1920년대에는 친일파의 양성을 도모한 ‘문화정책기’로,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천리교측에서도 조선인 포교지도자 양성을 위해 교의강습소를 개설하는 등 조선인 포교에 정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V. 1930년부터 해방 전까지 부산의 교파신도

1930년대 교파신도의 진출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보』의 경성부 포교소 설립 신청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1930년대 부산의 교파신도 진출양상⁴⁹⁾

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
천리교	천리교부산지교회	1904.10.20.	부산부 대청정 4정목 43번지	大峰仁三郎	-1935년 5월 6일 포교담당자가 大峰イノ로 변경 -1944년 3월 20일 天理教釜山教會로 명칭 변경

48) 大谷度, 앞의 책, 1992, 171~172쪽.

49) <표 4>는 1930년 1월부터 1945년 8월까지의 『관보』에 기록된 부산의 각 교파신도와 관련된 포교소설립허가(布敎所設立許可), 교회소이전허가(敎會所移轉認可), 포교소 위치변경(布敎所位置變更), 포교위임자신청(布敎擔任者屆出), 포교담당자변경(布敎擔任者變更), 포교소명칭변경허가(布敎所名稱變更許可)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지면상 각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자료출처는 생략하도록 한다.

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
	천리교동한 선교소	1908.10.04.	부산부 부평정 1정목 29번지	向井政市	1944년 3월 20일 天理教東韓宣敎所를 天理教吉鮮敎會로 명칭 변경
	천리교절영도 선교소	1909	부산부 절영도 1661	高田菊松	-1938년 9월 2일 瀛仙町 1677으로 이전 -1944년 3월 20일 天理教絶影島宣敎 所를 天理教絶影島敎會 로 명칭 변경
	천리교동래 선교소	1911.09.25.	경상남도 동래군 동래면	.	.
	천리교신탕 선교소	1911.09.25.	경상남도 동래군 동래면 온천동 온천리	山下朝 治郎	.
	천리교초량 선교소	.	부산부 초량(草梁) 110번호	高橋武藏	-1939년 12월 25일 大本角之助로 포교담당자 변경 신청 -1942년 9월 18일 포교담당자가 高田キス로 변경
	천리교절영도 선교소	1911.12.11.	부산부 영선정 번외 1-2	高田菊松	.
	천리교선교소	1911.12.11.	경상남도 부산부 절영도 주갑 39번호	土井寶市	.
	천리교선교소	1912.05.21.	부산부 부산진 95번호	.	.
	천리교조남 선교소	1915.12.23.	부산부 범일동 85-1	原菊太郎	.
	부산교회대신 동출장포교소	1918.11.18.	부산부 대신동 239-1	藤崎虎夫	.

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
	천리교부남 선교소	1919.04.19.	부산부 남빈정1-7	多賀谷 秀平	-1931년 6월 4일 多賀谷コギク로 포교 담당자 변경 -1942년 10월 29일 포교담당자 梁瀨八藏로 변경 -1944년 3월 20일 天理敎釜南敎會로 명칭 변경
	천리교경부 선교소	1921.08.12.	부산부 부평정 4정목 19	花田悅 次郎	1944년 3월 20일 天理敎京釜敎會로 명칭 변경
	천리교보수 선교소	1926.11.12.	부산부 보수정 2정목 73	綱永イト	-1930년 5월 31일 川井サ시로 포교담당자 변경 -1944년 3월 20일 天理敎寶水敎會로 명칭 변경
	천리교궁조 선교소	1926.11.12.	부산부 중도정 (中島町) 2정목 67	川井角次	1944년 3월 20일 天理敎宮鮮敎會로 명칭 변경
	천리교본상선 교소(天理敎本 尙敎所)	1931.03.26.	부산부 좌천정 398	左巴義彦	1944년 3월 20일 天理敎本尙敎會로 명칭 변경
	천리교관부선 교소(天理敎關 釜敎所)	1932.02.27.	부산부 대신정 405	古市順藏	1939년 1월 16일 포교소폐지 신청
	천리교양부선 교소(天理敎梁 府敎所)	1935.03.01.	부산부 보수정 3정목	山根仁三 郎	1944년 3월 20일 天理敎梁釜敎會로 명칭 변경
	천리교부초선 교소(天理敎釜 草敎所)	1935.05.15.	부산부 초량정 土井寶市	土井寶市	1944년 3월 20일 天理敎釜草敎會로 명칭 변경
	천리교부조선 교소(天理敎府 鮮敎所)	1935.12.16.	경상남도 동래군 동래읍 낙민동 294-8	黑河그キ ヨ	.

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
	천리교조남선교소(天理教朝鮮南宣敎所)	1939.08.23.	부산부 초량정 141	園田代作	1944년 3월 20일 포교소폐지 신청
	천리교구양선교소(天理教邱梁宣敎所)	1940.02.16.	부산부 수정정 377-3	.	1944년 3월 20일 天理教邱梁敎會로 명칭 변경
	천리교부산항선교소(天理教釜山港宣敎所)	1940.02.20.	부산부 영선정 1634	.	1944년 3월 20일 天理教釜山港敎會로 명칭 변경
금광교	금광교부산교회소	.	부산부 토성정 2정목 27번호	前田五助	-1930년 11월 25일 포교담당자 前田眞太郎로 변경 -1941년 5월 28일 金光敎釜山敎會로 개칭 -1942년 9월 18일 포교담당자 山下鏡影로 변경
	금광교부산교회초량포교소	1923.03.27.	부산부 초량동 43	前田マツ	-1931년 2월 2일 金光敎草梁小敎會所로 개칭 -1933년 2월 22일 초량정 638-2로 이전 -1937년 5월 3일 수정정 1030-5로 이전 -1941년 5월 28일 金光敎草梁敎會로 개칭
	금광교부산교회부산진포교소(金光敎釜山敎會釜山鎭布敎所)	1933.08.15.	경상남도 동래군 서면(西面) 부전리 (釜田里) 494	竹内茂	-1937년 2월 19일 포교담당자 小原左近로 변경 -1937년 좌천정 206으로 이전 -1942년 5월 28일

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
					金光教釜山鎮教會 로 개칭
신 리 교	신리교부산 교회소	1911.08.25.	부산부 초장정 3정목 86	山崎繁次 郎	.
	신리교부산 교회소	1914.08.20.	부산부 초장정 2정목 21번호	.	.
	신도신리교 부산포교소	1916.08.16.	부산부 대청정 1정목 9-1	田中藤太 郎	.
	신리교대신동 포교소	1918.11.18.	부산부 대신동 239-1	藤崎虎夫	.
	신리교부산 교회소출장 포교소	1921.05.22.	부산부 수정동 318	藤崎虎夫	.
	신리교보수 포교소	1925.05.02.	부산부 보수정 2정목 93	竹枝サク	.
	신리교부산 지교회	1926.03.08.	부산부 서정 4정목 15	岡登里	.
	신리교대신 포교소	1928.07.12.	부산부 대신정 (大新町) 471	.	-1932년 2월 23일 포교소폐지 신고 -1935년 10월 12일 보수정으로 이전
	신리교부산 분교회	1928.07.23.	부산부 변천정 (辨天町) 3정목 11	.	.
	신리교목도 포교소	.	부산부 牧ノ島 瀛仙町 1260-8	.	.
	신리교조방교 회본부(神理教 照房敎會本部)	1932.10.03.	부산부 대창정 (大倉町) 4정목	山内房	1935년 6월 15일 포교담당자 ニヶ崎福次郎로 변경
	신리교포교소 (神理敎布敎所)	1933.02.28.	부산부 대청정 2정목	中島基	.
	신리교포교소 (神理敎布敎所)	1933.06.05.	부산부 보수정 1정목	津島タケ	.
	신리교궁지옥 포교소(神理敎 宮地嶽布敎所)	1933.06.06.	부산부 수정정	.	.

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
	신리교목도남 부포교소(神理 教牧島南部布 教所)	1934.08.11.	부산부 영선정	姬野サワ	.
	신리교영선정 포교소(神理教 瀛仙町布教所)	1936.09.30.	부산부 영선정 1333	兼氏福松	.
대 사 교	대사교부산 교회소	1913.07.02.	부산부 부평정 3정목 45	野上雄治	-1941년 1월 17일 大社教釜山分院으 로 개칭 -1941년 1월 17일 서정 1정목 38-2로 이전
신도 본국	신도환산교회 부산지교회소	1929. 2. 21.	부산부 서정4정목 18-1	古市トモ	1939년 9월 27일 포교 담당자 西村カタ로 변경
부 상 교	부상교소속우 덕포교소(扶桑 教所屬祐徳布 教所)	1930.06.14.	부산부 부평정 2정목 51	久本寛治	1931년 5월 5일 부평정 2정목 55로 이전
	부상교소속보 덕포교소(扶桑 教所屬寶徳布 教所)	1931.07.02.	부산부 초량정 143	岡崎十郎	1935년 10월 26일 포교소 폐지 신고
	부상교소속부 산교회(扶桑教 所屬釜山教會)	1931.10.06.	부산부 부평정 2정목	久本寛治	1933년 10월 19일 영선정으로 이전
	부상교소속구 포포교소(扶桑 教所屬龜浦布 教所) ⁵⁰⁾	.	경상남도 동래군 구포면 (龜浦面) 구포리	.	-1931년 6월 20일 대신정으로 이전 -1931년 6월 30일 '御劔布教所'로 개칭 -1936년 5월 31일 포교소 폐지 신고

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
	부상교소속유신포교소(扶桑敎所屬惟神布敎所)	1932.01.08.	부산부 곡정(谷町) 1정목	.	-1934년 12월 29일 부민정(富民町) 3정목으로 이전 -1936년 10월 7일 神道扶桑敎富士釜山別院으로 개칭
	부상교소속부산신덕포교소(扶桑敎所屬釜山神德布敎所)	1934.06.20.	부산부 대청정 3정목 15	猪亦스고	-1936년 9월 14일 포교담당자 久本イサ로 변경 -1936년 12월 18일 서정 1정목 40으로 이전 -1938년 5월 20일 포교담당자 猪亦ミス로 변경
	부상교소속우덕원도하교회(扶桑敎所屬祐德院稻荷敎會) 51)	.	부산부 부평정 4정목 8	.	1934년 6월 24일 포교소 폐지 신고
	부상교히토노미치교단부산지부(扶桑敎ひとのみち敎團釜山支部)	1935.06.24.	부산부 보수정 3정목	平田種利	1935년 11월 9일 담당포교자 高橋則男로 변경
	부상교소속말광교회소(扶桑敎所屬末廣敎會所)	1936.08.12.	부산부 행정 2정목 12	.	.
	부상교소속경남분교회(扶桑敎所屬慶南分敎會)	1937.07.25.	부산부 초량정 265	.	1939년 1월 21일 포교소폐지 신고
	부상교소속부산포교소(扶桑敎所屬釜山布敎所)	1940.04.05.	부산부 대청정 4정목 87	.	.

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
	부상교소속부 산대도포교소 (扶桑教所屬釜 山大道布教所)	1940.04.10.	부산부 복전(福田) 81	多田ウラ	-1943년 7월 19일 서정 1정목 19로 이전 -1943년 7월 19일 포교담당자 鳥越道夫로 변경
	부상교소속송 신포교소(扶桑 教所屬崇神布 教所)	1940.04.18.	부산부 부평정 1정목 2	松尾ヤエ	.
	부상교소속조 일포교소(扶桑 教所屬朝日布 教所)	1940.02.16.	부산부 본정 5-3	.	.
	부상교소속경 남분교회소(扶 桑教所屬慶南 分教會所)	1942.02.01.	부산부 본정 5-36	川上ウメ	.
흑 주 교	흑주교부산교 회(黑住教釜山 教會)	1941.11.15.	부산부 부평정 3-45	松本文美	.

<표 4>에 따르면, 1930년에서 1945년까지 부산에는 천리교가 23개 소의 포교소로 가장 교세가 컸으며, 신리교가 16개소의 포교소, 부상교⁵²⁾가 15개소의 포교소, 금광교가 3개소의 포교소, 신도본국과 흑주

50) 『조선총독부관보』, 1931. 11. 26. 1467호 7면, ‘布教所所在地變更屆’만 있고, 포교소 설치인가 및 담당포교자 발령에 관한 기록은 없다.

51) 『조선총독부관보』, 1935. 11. 9. 2648호 4면, ‘布教所廢止屆’만 있고, 포교소 설치인가 및 담당포교자 발령에 관한 기록은 없다.

52) 부상교는 후지(富士)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조직한 자는 시시노 나카바(宍野半)이다. 시시노는 1873년에 부산일산강사(富士一山講社) 설립운동을 일으켰고, 이듬해에는 후지산 폐불훼석 운동에 참여하여 여러 사사의 이름을 신도적으로 바꾸었다. 1875년에 환산강을 끌어들이어 신도시무국 소속의 부상교회(扶桑教會)를 설립했다. 이것이 1882년에 부상교로 독립한 것이다. 1885년 환산교회가 신도본국으로

교⁵³)가 1개소의 포교소 순이었다. 교세의 확장에 있어서는 부상교가 15개소의 포교소를 신설하며 가장 많이 확대되었으며, 천리교의 포교소가 8개소, 신리교가 6개소, 금광교·흑주교가 1개소 순으로 증설하였다. 1930년대에는 부산에 부상교와 흑주교가 새롭게 진출하였으며, 특히 부상교가 1930년부터 15개소의 포교소를 신설하며 교세를 급격하게 확장해 나간 것이 특징이다.

1920년대 6개소의 포교소로 가장 많은 교세를 확장한 신리교의 경우, 1930년대에도 6개소의 포교소의 증설로 비교적 높은 교세의 확장을 나타냈다. 신리교의 경우 조선포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조선포교관리사무소가 부산부 변천정 3정목 5번지⁵⁴)에 소재하며 부산의 포교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사교의 경우 1928년 부산에서 경성으로,⁵⁵) 1928년 경성에서 부산으로,⁵⁶) 1930년 부산에서 경성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부상교 교파의 교세가 반감되었다(이노우에 노부타카, 앞의 책, 2010, 319쪽).

- 53) 흑주교의 교조는 구로즈미 무네타다(黒住宗忠)이다. 무네타다는 원래 신사신도의 풍토 안에서 성장했는데, 독특한 종교체험을 거쳐 1815년부터 강석과 마지나이(禁臆)를 중심으로 한 포교활동에 들어갔다. ‘일일가내심득사(日日家內心得の事)’라는 7개조의 간단한 마음 수양서 외에 정리된 교의는 없고, ‘떠오르는 대로의 설법’이라 하여 마음에 떠오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강석이 특징적이었다. 무네타다의 사후 육고제(六高弟)의 활동에 의해 교세가 중국(中國)·시코쿠(四國)·긴키(近畿) 지방으로 확장되며, 막말기에는 가장 세력이 큰 신종교였다(이노우에 노부타카, 앞의 책, 2010, 320쪽).
- 54) 『조선총독부관보』, 1936. 10. 30. 2940호 5면, ‘布教管理者並布教管理事務所位置變更認可’.
- 55) 대사교부산교회소 및 포교관리자 부산부 부평정 3정목 4號-6 대사교부산교회소 내의 오타니(大谷豊太郎)를 경성부 죽림정(竹添町) 2정목 98번지 대사교 경성교회소 내 고토(後藤梶之助)로 변경의 건, 대사교관장(管長) 센계(千家尊有)의 출원에 의해 9월 9일 허가한다(『조선총독부관보』, 1925. 09. 18. 3928호 3면, ‘布教管理事務所及布教管理者變更認可’).
- 56) 대사교포교관리자 고토(後藤梶之助)를 노가미(野上雄治)로, 경기도 경성부 죽림정(竹添町) 2정목 98번지를 부산부 부평정 3정목 45번지로 변경의 건, 11월 12일 허가한다(『조선총독부관보』, 1928. 11. 21. 568호 4면, ‘布教管理者並布教管理事務所ノ位置變更認可’).

로,⁵⁷⁾ 1940년 경성에서 부산으로⁵⁸⁾ 포교관리소를 수차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상교는 1930년에서 1942년까지 15개소의 포교소의 신설로 부산에서 가장 높은 교세의 확장을 나타냈다. 부상교의 경우 1926년 “내선인(內鮮人)의 융화를 정신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총독부로부터 포교허가를 받았으며,⁵⁹⁾ 오카지(岡次郎太郎)를 관장으로 하여 1926년 3월경부터 용산 태양관(太陽館) 내에 개교사무소를 설치하여 각지의 선전(宣傳) 방법 등을 계획하였다.⁶⁰⁾ 즉, 부상교의 경우 1926년에 경성에서 조선포교를 시작하여 1930년대에 조선포교관리사무소가 부산부 영선정 주갑(洲岬) 2022⁶¹⁾에 설치되면서 부산에서 급격하게 교세를 확장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교파신도의 신도(信徒)의 포교 상황을 『부산부세요람』(1932)을 통해 살펴보면, 천리교의 경우 일본인 신도가 3,501명, 조선인 신도가 839명, 금광교의 경우 일본인 신도가 1,935명, 한국인 신도가 5명, 신리교의 경우 일본인 신도가 1,681명, 조선인 신도가 76명, 부상교의 경우 일본인 신도가 448명, 조선인 신도가 0명⁶²⁾으로 주로 일본인을 상대로 포교가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리교의 경우 조선인 신도가 교파신

57) 대사교포교소관리자 노가미(野上雄治)를 호우리(祝部重道)로 변경의 건 및 동교 포교관리사무소의 위치를 부산부 부평정 3정목에서 경성부 영락정(永樂町) 2정목 84번지로 변경의 건, 3월 12일 허가한다(『조선총독부관보』, 1930. 03. 22. 963호 11면, ‘布教管理者及布教管理事務所位置變更’).

58) 경성부 영락정 2정목 84번지에서 부산부 부평정 3정목 45번지로 대사교 조선포교관리소의 이전을 허가한다(『조선총독부관보』, 1940. 11. 01. 4134호 38면, ‘布教管理事務所位置變更認可’).

59) 『朝鮮新聞』, 1926. 6. 2, ‘扶桑教開教’.

60) 『朝鮮新聞』, 1926. 9. 18, ‘進んで來た扶桑教朝鮮人に布教’.

61) 『조선총독부관보』, 1929. 06. 13. 733호 7면, ‘布教管理者及布教管理所位置變更’. 포교관리소의 위치를 경성부 황금정(黃金町) 4정목 308번지로부터 부산부 영선정 주갑(洲岬) 2022번지로 1929년 6월 3일 변경하였다.

62) 釜山府編, 『釜山府勢要覽』, 釜山府, 1932, 115~117쪽.

도 중 가장 많은 편인데 이는 한국어를 통한 조선포교의 효과뿐만 아니라 천리교 일본교단 시찰단을 기회로 일본으로 불법으로 건너가기 위해 신자가 되는 이들도 있었기⁶³⁾ 때문이다.

1930년대는 1931년 만주사변의 발발으로 일제가 본격적인 전시체제에 들어가며 황민화정책을 실시한 시기로, 천리교를 비롯한 교파신도는 일제의 인적·물적 자원통제에 종교보국이란 명목으로 적극 협력하였다. 부산 천리교측은 1936년 수해 의용금을 기부하였으며,⁶⁴⁾ 천리교 조선포교관리소 측에서는 1938년 군사후원맹 위문금을 320원,⁶⁵⁾ 1941년 2월 현금 30원,⁶⁶⁾ 1941년 12월 해군무관부(海軍武官府)에 1만원, 1943년 2월 방공감시대(防空監視隊)에 백원⁶⁷⁾을 기부하며 종교단체 중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는 양상을 나타냈다. 후원금의 기부 외에도 1938년 천리교 조선포교관리소에서는 총후 보국강조 포스터 영화 상영⁶⁸⁾ 및 총후보국주간에 감미저축(減米貯蓄)운동을 하였다. 특히 ‘총후보국강조주간실행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중앙포교관리소로부터 전조선교회장에게 각종 인쇄물을 배포하였고, 영화를 순회·상영하여 시국인식의 선전을 하였으며, 종이부스러기와 헌옷을 중앙포교관리소로 보내어 판매하여 전액 현금을 하기도 하였다.⁶⁹⁾

63) 『부산일보』, 1929. 04. 15., ‘천리교 내지시찰단을 기회로 도선[渡船]하려는 조선인들을 감사.’

64) 『每日申報』, 1936. 09. 22., ‘水◇害◇義◇捐◇金 朝鮮社協取扱分 九月十八日現在’..

65) 『每日申報』, 1938. 03. 17., ‘軍事後援聯盟 取扱慰問金’.

66) 『每日申報』, 1941. 02. 15., ‘獻金美譚 가지가지’.

67) 『每日申報』, 1943. 02. 11, ‘高潮된 銃後의 感謝 - 防空監視隊에 義金 萬八千圓突破’.

68) 총후보국강조주간실시에 당하여 천리교(天理敎)의 조선포교관리소도 혼연히 참가하여 포스타 영화 등을 리용하기로 되었으며 또는 천리시보(天理時報)와 그 조선관에 이번주간의 여러 가지 실시의 취지를 게재하여 총후보국강조의 관념을 각 교인에게 알리게하였다. 그리고 교인의 가정에서는 폐물을 리용하여 그것으로부터 생긴 돈을 모두어 전부 헌납하기로 하였다(『每日申報』, 1938. 04. 27, ‘朝鮮内の 天理敎徒 銃後報國週間活動’).

69) 『每日申報』, 1938. 04. 28., ‘銃後報國週間中特殊團體의 活動’.

요컨대 1931년대 천리교단 운영자들은 외부적으로 지금까지 이상의 국가협력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조직해체의 위기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국가권력과 마찰을 일으킬 만한 신자들의 통제, 관리강화에 노력하게 되었다. 1934년부터 시작된 천리교단에 의한 만주천리부락건설은 당시의 천리교단에 의한 전쟁협조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으며,⁷⁰⁾ 이는 1930년대 교파신도의 일제의 군국주의 활동에 적극 협력한 양상을 나타낸다.

VI. 결론

지금까지 부산에 진출한 교파신도의 진출 및 활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일본에 공인된 교파신도는 총 13종파로 1910년까지 천리교와 금광교가, 1920년대에는 신리교와 대사교가, 1920년대에는 신도본국이, 1930년대에는 부상교와 흑주교가 부산에 진출하여, 1945년 해방 전까지 부산에는 총 7개 종파의 교파신도가 진출하였다. 그 중 1945년까지 천리교가 23개소의 포교소로 가장 교세가 컸으며, 신리교가 16개소의 포교소, 부상교가 15개소의 포교소, 금광교가 3개소의 포교소, 신도본국과 흑주교가 1개소의 포교소 순으로 교세를 확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산에 최초로 진출한 교파신도는 천리교로 1893년 고치현의 천리교 신자가 건너와서 포교를 시도한 이래 1897년 11월 말경 기비 출장소의 신자 무카이 가시치의 밀항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일병합 전까지 천리교가 부산에서 포교소 3개소를 개설하며 교세를 가장 많이 확장했으며, 한일병합 이전 교파신도의 포교자들은 학력이나 직업 상 교도직 자격을 얻기가 힘들어 정식 도향수속을 밟을 수 없

70) 이원범, 앞의 논문, 1998, 298쪽.

어 밀항으로 건너와서 1910년대까지 일본관현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대에도 천리교가 11개소의 포교소를 증설하며 가장 큰 폭으로 교세를 확장하였으며, 천리교에서 무야농작소를 운영하며 경제적 지원과 ‘일한동심회’라는 친목단체를 결성하여 조선인의 포교를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1920년대에는 천리교가 15개소의 포교소로 부산에서 교세가 가장 컸지만, 신리교가 6개소의 포교소를 증설하여 교세를 가장 많이 확장하였다.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조선민족 동화를 위한 구제지도(救濟指導)를 목표로 천리교측에서는 조선인 포교지도자 양성을 위해 교의강습소를 개설하는 등 교파신도 일동이 조선인 포교에 정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1930년대부터 해방 전까지는 천리교가 23개소의 포교소로 부산에서 가장 교세가 컸으며, 부상교가 새롭게 진출하여 15개소의 포교소를 신설하며 가장 많이 확대되었다. 이 시기는 일제가 전시체제기에 들어가면서 황민화 정책을 실시한 시기로, 천리교를 비롯한 교파신도들이 종교보국이란 명목으로 신자들의 통제, 관리강화 및 적극적으로 일제의 군국주의 활동에 적극 협력한 시기였다.

해방 후에는 경성부에 남겨진 천리교집회소의 경우 43개소로 미군군정청에 인계되어 장로교회목사를 양성하는 조선신학교로 변모되었다.⁷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에 진출한 교파신도 중 천리교는 한국에 남아, 금광교는 해방 후 다시 들어와서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천리교는 이후 신체(神體)의 문제로 일본식을 고수하는 한국천리교와 한국식의 토착화를 고수하는 대한천리교로 분열되었으며, 신자의 고령화와 새로운 신자의 부족으로 쇠퇴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그 교세가 전국적으로 뻗어있다.

71) 『民衆日報』, 1945. 11. 8., ‘天理敎建物을 接收, 女子神學校을 設立’.

교파신도의 행적은 미신과 국가공인 종교의 경계에서 포교에 무속을 이용하기도 하고 전시체제기에는 일제의 정책을 지원하는 등 근대 한국 종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개항 전후로 교파신도의 한국진출에 있어서 교두부 역할을 한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이에 향후 본고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에 황민화의 종교기관의 역할을 했던 천리교가 해방 후 서울에서 다시 그 교세를 어떻게 확장해 갈 수 있었는지, 해방 후의 교파신도의 한국 내의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1. 고문헌 및 신문

道乃友
 每日申報
 民衆日報
 부산부세요람
 세계일보
 조선총독부관보

2. 저서 및 논문

권동우, 『일제강점기 교파신도 한국 유입과 분포에 대한 연구』, 『일본불교문화연구』 11, 2014.
 文智燾,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신종교에 대한 정책과 신종교단체』, 『한국사연구』 114, 2013.
 孫禪睦, 『한국 개항기 도시 변화과정의 연구』, 일지사, 1982.
 大林浩治, 『전전기 금광교의 신앙과 실천』, 『한국종교연구회회보』 6, 1995.
 이노우에 노부타카 외·박규태 옮김, 『신도, 일본 태생의 종교시스템』, 제이앤씨, 2010.

- 이원범, 『일본계 신종교 운동의 성립과 사상』, 『한국종교』 23, 1998.
이원범 · 사쿠라이 요시히데 편저, 『한일 종교문화 교류의 최전선』, 인문사, 2011.
정명수, 『대한천리교사1: 식민지 시대의 신도천리교』, 미래문화사, 2000.
최석영,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권력』, 서경문화사, 1997.
_____, 『敎派神道の 조선포교와 무속의 대응』, 『민속학연구』 6, 1999.
_____, 『일제의 조선연구와 식민지적 지식 생산』, 민속원, 2012.
- 小野清秀 著, 『神道教典』, 大聖社, 1915
村上重良, 『國家神道と民衆宗教』, 吉川弘文館, 2006
大谷度, 『敎派神道と近代日本』, 大阪市: 東方出版, 1992.

3. 인터넷 사이트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
出雲大社敎 홈페이지 <http://www.izumooya shiro.or.jp/hitobito/taisyakyo/>

투고일 : 2019. 06. 06. 심사완료일 : 2019. 07. 05. 게재 확정일 : 2019. 07. 25.
--

| Abstract |

Kyoha Shinto's Advance And Activities In Busa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Mun, Hea-Jin

Kyoha shinto advanced into all colonies of the Japanese empire to propagate Japanese shinto instead of State Shinto, memorial service system of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Tenrikyo in 1893 and Konkokyo before 1910 entered in Busan. After Japan's annexation of Korea, Sinrikyo in 1911, Izumotaisyakyo in 1913, ShintoHonkoku in 1929, Fusokyo in 1930 and Guromizukyo in 1941 entered in Busan. Before and after Japanese colonial era, 7 sects of Kyoha shinto advanced in Busan. Churches of Kyoha shinto in Busan played a key role in advancing into Jose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Kyoha shinto had entered in Busan and had been active in propagation. Objects of this research is Japanese General Government's official gazette, referring Japanese General Government's statistical yearbook, newspapers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and etc. After Korean independence, Tenrikyo and Konkokyo have been continued mission activity and are having nationwide churches in South Korea. Nevertheless, historial researches of these sects in both South Korea and Busan are rare. Therefore, this paper will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history of Kyoha shinto in Busan and religious cultures in colonized Joseon.

Keywords: Kyoha shinto, Sinrikyo, Tenrikyo, Konkokyo, Propagation